

내외 주요 논문 소개 (1)

초생추에 대한 탕의 불가식 내장싸이레지 급여사양시험

한국파학기 술연구소

김 춘수 지 규만

탕의 폐기물 이용 방안의 하나로서, 도계장에서 생산되는 탕의 불가식 내장을 발효 처리하여, 대두박 및 어분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싸이레지(Silage) 10%로서, 대두박 5% 및 어분 3%를 각각 대체하였을 때, 성장율에서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였고, 사료효율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부로일러에 대한 펠릿트사료 급여 효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이 남형 김 규일

코브 120수를 사용하여 펠릿트 사료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8주간 실험을 실시하였던 바, 일반적으로 펠릿트구는 가루(all mash)구보다 증체량 및 사료 섭취량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시험종료후 4주간의 대사시험을 아울러 실시하였다.

초생추사료의 외산어분에 대한 국산 어분, 우모분 및 혈분의 급여효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박 흥석 이 남형

햄프흔 웅추 270수로서 8주간에 걸쳐 외산어분에 대한 국산어분, 우모분 및 혈분의 급여효과를 갖기 위하여 6처리구를 설정하여(대조구 외산 12%, 대치구·국산어분 30%, 50%, 70%, 우모분 30%, 혈분 30%) 3반복으로 시험하였다.

시험결과는 1) 증체에 있어 국산어분 50% 70% 구 우모분구가 대조구 국산어분 30% 구 혈분구에 비해 우수했다.

2) 사료 섭취량은 유의차가 없었다.
3) 사료효율은 국산어분 30%구가 가장 나빠으나, 다른 처리구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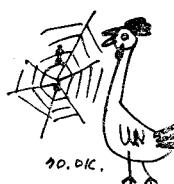
캠퍼스뉴스 캠퍼스뉴스 캠퍼스뉴스 캠퍼스

캠퍼스뉴스

☆대학가 소식 대학가 소식 대학가 소식☆

○ 서울대학교 ○

축산 학회 수의학회 공동 발표회 성료



10월 8일 수원
의 서울농대 캠퍼스에서 국내
최초로 축산학
회 제 15회 정기
총회 및 17회 학

술발표회, 수의학회의 제 14차 수의학
회학술발표회가 공동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수의학회와 공동으로 우유의
위생문제를 토론하여 많은 관심을 모
았는데 축산, 수의 관련협회에서 공
동으로 개최한 예는 이번이 처음으로
서 앞으로 양학회의 진밀한 협조를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 날의 학술발표회에서 축산학회는
서울농대 박영일 박사의 「산란계에 있
어 수입계와 국산계의 경제능력에 관
한 연구」의 35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
고, 수의학회에서는 가축위생연구소
이창구 박사의 「뉴캣슬병 음수백신의
초생추에 대한 면역」의 51편의 논문
이 발표되었으며, 탕에 대한 사료 육
종 질병의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큰
수학을 거두었다.

한편 이어 개최된 축산학회 총회에
서는, 서울농대의 박영일 박사가 육종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제 4
회 학회상을 받았다.

축산학회상의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과 같다.

1회 : 윤 창 현

(진주농대 · 번식분야)

2회 : 김 동 암

(서울농대 · 초지분야)

대 학 가 소 식

3회 : 한 인 규

(서울농대·영양분야)

임원진의 개선에는

회장 강면희(고대), 부회장 오선균(충북대) 오봉국(서울대) 김상철(축산시험장), 상무 송계원 박사 등이 피선되었으며,

오후 7시부터는 시내에서 축산시험장 정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김춘수, 고대 김영교, 퓨리나의 최성식 박사 등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파티가 개최되어 성공리에 이날의 행사를 끝마쳤다.



<논문 발표 광경>

○ 전북대학교 ○

가축품평회 개최

9월 30일 전북 가축 품평회가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각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황소와 비육우 유후등이 주로 출품되었으나, 전주의 황지부화장에서 출품한 「토프라인」이 양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전주지방에서는 달걀의 품귀현상을 일으켜 좋은 값으로 거래되고 있다.

〈주재원 수의축산 4 김 형 년〉

내외 주요 논문 소개 (2)

러시안 컴프리 분말첨가가

초생추 발육에 미치는 영향

강원 대학

정 계완

양축가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러시안 컴프리 (Russian Comfrey)의 효과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5% 첨가수준에서 클로버 아까시아 일동과 비교하였다. 종체에 있어서는 일반녹자로 첨가는 비타민 첨가제보다 효과가 적었지만 무 첨가구보다는 효과가 있었다.

러시안 컴프리는 비타민 첨가구나 아까시아 첨가구보다 약간 떨어지나, 일반적으로 비타민 첨가제 대용을 할 수 있으며, 첨가시에는 5%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계의 성능에 대하여

서울 농업 대학

최 창해

국산계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순계(純系) 3계통 450수, 계통간교배종 1계통 150수, 품종간교배종 1계통 150수 도합 750수를 공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생존율에 있어서 육추기와 육성기는 외국계와 차이가 없으나, 산란기간중의 폐사는 가장 높았으며 폐사 계중에 벡혈병이 원인이 된것이 가장 많았다.

2) 성성숙일령은 평균 183.6일로서 특히 순종계통이 교배종보다 늦다.

3) 산란능력에 있어서는 비교적 양호하며 특히 품종간 교잡종의 산란능력은 외국계와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4) 난중은 평균 55.5g으로서 성성숙일상과 더불어 이 형질의 계량에 차증할 것이다.

5) 사료효율은 일본계와 가까우나 미국의 성적보다는 떨어지며, 국산계종에서 계통간 교배종이 양호하다.

6) 성계의 체중은 1.9kg정도로서 앞으로 1.8kg정도로 개량하여 사료효율을 향상 하여야 할것이다.

7) 성계의 폐사율은 연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며 벡혈병으로 인한것이 가장 많아 이의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국산계는 성성숙 일령 및 난중이 많이 떨어지고 기타형질은 별로 손색이 없다. 특히 그중 우량한 것이 있어 이계통들을 기초로 하여 육종하면 국산계의 경제능력을 외국계와 대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외 주요 논문 소개 (3)

산란계에 있어 수입계와 국산계의 경제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박 영일 오 봉국

1966년 4월부터 1969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산란계 경제 능력 검정시험에 근거하여 도입계, 도입계 종간교잡종(種間交雜種), 도입계와 국산계간 교잡종 및 국산계의 능력을 비교 검토했다.

도입계와 국산계간에는 육추율, 육성율 및 성계 생존율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는 없었으나 도입계는 국산계에 비하여 성성숙일령이 빨랐고, 산란율 및 산란지수도 약간 더 높았으며 난중이 무거웠고 500일령 체중은 적었으며 사료요구율도 보다 양호하였다.

도입계의 우수성은 유전력이 높은 형질인 난중에서 가장 혈자하게 나타났다.

병아리 육성에 있어서 사료첨가제의 비교 시험

강원대학

정 계완 하 서현

시판 사료첨가제가 병아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첨가제를 사용한 구(區)는 사용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일률적으로 증체율이 좋았다.
- 2) 첨가제들 간에 증체에 대한 효과는 통동일하지 않고 첨가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 3) 첨가제의 가격이 좋은 것은 대체로 그 성능도 좋다.
- 4) 첨가제를 사용할 때 사료효율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 5) 첨가제의 신선도에 따라 증체에 차이가 있다.

○이번호에 수록된 내외 논문 소개에는 그간 외국논문에만 치우친 감이 있어 축산학회 17회 학술발표회와 축산학회지 제12권 제2호, 수의학회지 제10권 제1호에서 발췌 수록하였습니다. —편집자 註.

캠퍼스 뉴스

○ 건국대학교 ○

초지의 날 행사성료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사료의 자급화를 위하여 초지조성을 장려하고 축산진흥에 목적을 둔, 제2회 초지의 날 기념행사가 전대 실습사료포장에서 9월5일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풀베기 대회에서는 3분간에 30kg을 벤 운동모금이 우승하여 학장상을 차지했다.

한국농촌문제 심포지움개최

9월12일 전대 대 강당에서 한국농촌 문제에 관한 윤희섭 교수(한국축산의 제 문제점)를 비롯한 7명의 교수들이 4시간여에 걸쳐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주재원 축 4 김 호 섭〉

○ 전남대학교 ○

1967년도에 신설된 전남농대 축산과는 70여명의 학생(1,2학년)과 백남현(축산, 경영) 박종만(사료, 가금) 김용식(낙농, 사양) 김재홍(유전, 심사) 교수의 지도 아래 5경보의 부속 목장 및 부속가축병원 5경보의 사료포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받고 있다.

하계 방학때에는 성화 국립종축장과수원, 대관령 등지에서 견학실습을 가졌고 광주 근교의 목장에서 실습을 가졌다. 오늘도 전남농대의 축산학도들은 폐기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미래의 한국축산을 향해 의욕을 쉬지 않고 있다.

〈주재원 축 2 이 종 기〉

대 학 가 소 식

이성환 교수 서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교수와 전임학생과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성환 박사가 향년 51세를 일기로 10월 19일 세벽 차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故 이 박사의 장례는 10월 21일 수원농대 교정에서 학교장으로 염수되었다.

〈서울대 농대 죽4
주재원 박승균〉

☆젖소와 닭병 전문의☆

...김 영 가축병원

전남 광주시
계림동 270~5

광주고등학교 건너편
Tel 광주 ② 3801

내외 주요 논문 소개 (4)

뉴캐슬 음수 백신의 초생추와 성계에 대한 면역효과 시험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이 창구 정 병탁

초생추 :

- 1일령추에 초도 면역한 후 재면역 하였을 때 방어율은 80%이하로 면역효과가 나빴다.
- 3일령추에 초도 면역하여 5일후에 재접종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80%이상의 방어율을 나타냈다.
- 5일령추에 초도면역 후 10일후에 재 접종한 구가 85%일뿐 나머지 구는 방어율이 낮았다.
- 7일령추에 초도 면역후 3, 5, 7, 10일 간격을 두고 각각 재접종한 결과 각각의 80, 90, 85, 95% 방어율로써 다른 일령에 비해서 월등히 방어율이 높았다.

성계 :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성계에 음수법으로 투여하여 2주간격으로 혈청역기를 조사하였던 바

- 성계에 B₁생독백신과 라 소타(La Sota)생독백신을 음수투여하였을 때 양자 모두 접종반응을 볼 수 있었다.
- 1차 접종에서 획득한 혈청항체의 잔유는 2차접종 시의 항체가 큰 영향이 없었다.
- 2차 접종한 구는 고경월주로 후독 접종하였을 때 100% 방어하였다.

닭의 백혈병 및 마렉병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김선중 등

야외발생 상황조사에서 품종이 다른 지경양계의 닭 2,750수와 한국 종종축개량협회의 경제능력 검정계 20 품종 1,000수 도합 3,750수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바

- 백혈병 및 마렉병의 품종별 발생율은 모계의 사양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9%~6%로서 품종간에 유의자가 있었다.
- 병별 발생상황은 임파성 백혈병이 마렉병과 백혈병의 발생률의 87%(지경)와 94%(검정)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마렉병 임파성 백혈병과 마렉병의 복합형의 순서였다.
- 월령별 발생상황은 임파성 백혈병은 5개월령에서 40%로 최고의 발생도를 보였고 다음 6, 4, 7개월령의 순서였으나 마렉병은 6개월령에서 발생율이 높았고 (40%) 다음 5, 7, 4개월령의 순서였다. □□